

‘포교는 희망’ ‘불국토 건설 앞장’ 다짐

조계종 제1회 2009 포교결집대회 열려... 1만 사부대중 전법 열정 한 목소리

“포교는 희망입니다.”

성큼 다가온 추위도, 신중 플루토 무서워 달아날 듯한 아침과 열기가 하늘을 찌른다.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전법의 길을 설 틈 없이 가고 있는 전국 1만 2000여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해충)은 11월 14일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2009 포교결집대회’를 봉행했다. 1600년 한국불교역사에 한 획을 그은 제1회 포교결집대회는 포교원 산하 포교·신도 단체와 신도 전문교육기관, 종합학교 등의 포교주체들이 총집결한 한마당이었다.



1만2000여 사부대중이 <금강경>을 독송하며 부처님 전법선언의 실천을 서원했다.

#‘금강경’ 독송으로 시작

삼라만상과 중생을 무명에서 일깨우는 사물(四物)의 장중한 울림이 대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강홍원)의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사가 펼쳐졌다.

3부로 진행된 행사는 1부 1만여 사대부중의 <금강경>독송, 2부 결집대회, 3부 포교역량 한마당 순으로 진행했다.

서울 대성사 주지 법안 스님의 집전에 맞춰 사대부중은 한글 <금강경>을 한 시간여 동안 독송했다. 경전이 한 장씩 넘어 갈 때마다 사부대중의 환희심은 넘쳐흐르고 포교 열기는 강당을 가득 메웠다. 조계종의 소의 경전인 <금강경> 대중독송은 과거 민족적 위기와 국난극복을 위해 열렸던 백고좌, 만일연불결사 등의 불교전통 계승과 함께 대중이 함께 하는 새로운 신명문화를 수립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순서였다.

경전 독송에 이어 행사 중간 중간에는 LMB싱어즈, 연합합창단, 뉴트리팝스, 체육인불자 태권도 시범단, 평창 극락사 연꽃유치원 어린이 살사댄스, 가수 한영애, 김국환 축하공연 등이 차례로 공연으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2부 본 행사는 각 단계·대표자 입장, 대회 표어인 ‘포교가 희망입니다’가 적힌 대형 현수막 개막으로

본격적인 행사를 시작했다.

종정 법전 스님은 원로회의 부회장 밑을 스님이 대독한 법어에서 “거룩한 포교결집대회를 통해 사부대중은 가슴을 열어 수희동참(隨喜同參)하고 제불보살은 생사의 얽매임에서 벗어나는 길을 열고 있다”며 “수행의 눈이 밝아 마음 속 깊이 있는 부처를 보는 안목과 생사를 끊는 기용(機用)으로 교화의 대기대용(大機大用)을 갖춰 오늘 대회의 참 뜻을 살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해충 스님은 대회사에서 “전법과 포교에 매진하는 불제자 스스로 삶의 모범이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라”며 “포교결집대회는 모든 포교역량을 결집해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포교에 진력하는 사부대중이 교류, 연대하는 축제의 장이다. 결집대회는 한국불교의 미래와 희망을 위한 새로운 역사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은 축사에서 “한국 불교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중심이고 희망인 포교에 큰 힘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결집대회를 기폭제로 포교를 위해 일로매진하는 결집심과 분발심을 세워 한국불교의 앞길을 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은 사부대중을 대표해 ‘2010 포교 실천 결의문’에서 △단체 간 연계와 연대, 전문성과 다양성을 토대로 한

포교활동 △사찰과 함께 각 지역별 포교협력체계 형성으로 지역불교 활성화 △신행 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생활과 경제 공동체 형성 △차별과 배타, 편향을 타파하고 이웃과 사회의 소통, 행복을 위해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원력상 본지 최정희 초대국장

3부 포교역량 한마당에서는 포교대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제21회 포교대상(종정상)을 수상한 장수 죽림정사 조실 도문 스님은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창립, 불교양성 및 군포교 활동, 20여 종의 경전 번역 및 불사 법보시 운동, 서울대학교 총불교학생회 설립 등 49년간 활발한 계승포교를 펼치며 수제 불자만도 105만 명에 이른다.

도문 스님은 수상 소감에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였던 용성(龍城, 1863~1940) 스님의 활약상과 정신을 강조하며 “용성 스님의 유언에 따라 심부름만 했을 뿐이다. 상을 받은 것이 부끄럽다”며 “1만 2000불자와 한마음 한 뜻으로 남북통일을 이루고, 60억 인류가 자각각태(自覺覺他)의 삶을 살도록 회향하며 살겠다”고 다짐했다. 스님은 이날 받은 포교대상 상금 500만원 전액을 그 자리에서 다시 해충 스님에게 전달했다.

공로상(총무원장상)에는 불교호

스피스 회장 지현 스님(어린이포교, 송광사 울주), 부산 설동근 교육감(청소년포교), 한갑진 한진흥업 회장(영상포교), 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예술포교)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원력상에는 월봉사 주지 오심 스님(노인복지), 해군군종실장 강도연 법사(군포교), 포교사단 허정희 통일분과위원장(새터민포교), 연꽃어린이집 정기자 교사(어린이포교), 서울구치소 최숙희 교화위원장(교정교화), 동국대 선학과 황수경 강사(국제포교), BBS초대석 최정희 前 현대불교신문 편집국장(매체포교), DW로지스틱스 하정선 이사(청소년포교), 대일학원 백명숙 이사장(청소년포교), 방송인 이수근씨(매체포교), 모스크바 한양여행사 지호천 대표(국제포교)가 선정됐다.

그 밖에도 제1회 포교결집대회를 기념해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특별상을 시상했다. 특별상에는 대한불교 소년소녀합창단·무용단(대표 조격), 화성 용주사 외국인 한국어학교(대표 정호 스님), 각원사·통도사 불교대학, 동국대 정각원장 법타 스님, 방송인 김병조, 가수 장미화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이날 명예포교사로는 촉구선 수 박지성씨와 가수 김홍규, 김국환 씨, 정성숙 유도심판 등이 선정됐다. 해외에 있는 박지성 선수를 대신해 온 아버지 박성종씨는 “부처님과

전국 스님, 불자들의 기도 덕분엔 박지성 선수가 해외에서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며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며 명예포교사로 위촉해 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조계종 신도증 홍보대사이자 방송인 이수근은 “1박2일 출연자인 강호동, 이승기, 은지원 등 연예인 중에도 불자들이 많다”며 “지금 조계종 신도증 갱신 기간이다. 불자라면 신도증 하나는 소지 해야한다”고 설명하며 홍보대사의 역할도 푼뚝히 했다.

불교여성개발원 한주영 사무처장은 “전체 수상이 24명 가운데 8명이 여성으로 작년에 비하면 여성불자들의 역량이 크게 향상됐음을 보여주는 뜻 깊은 일이다. 무엇보다 불교여성개발원이 선정한 108인 6명, 불교여성개발원 부산지원 부원장 1명을 포함해 7명이 본인 소속임은 더욱 반갑고 기쁘다”고 전했다.

#참신한 기획 비헤 미비한 진행

이번 포교결집대회는 전국 포교신도단체의 자생적 포교역량강화를 시도하는 대규모 포교결집대회였다. 숨어 있는 불자들을 노출시키고 불자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 고취에 집 정기자 교사(어린이포교), 서울구치소 최숙희 교화위원장(교정교화), 동국대 선학과 황수경 강사(국제포교), BBS초대석 최정희 前 현대불교신문 편집국장(매체포교), DW로지스틱스 하정선 이사(청소년포교), 대일학원 백명숙 이사장(청소년포교), 방송인 이수근씨(매체포교), 모스크바 한양여행사 지호천 대표(국제포교)가 선정됐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김진해 사무총장은 “포교 실행활동을 펼치고 있는 많은 불자들이 한자리에서 한 뜻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서울구치소 최숙희 교화위원장은 “행사의 기획 취지가 매우 좋다. 불자들의 결집력과 자긍심, 소속감을 일깨우기 위해 매년 열려야할 행사다. 하지만 앞으로는 행사의 진행 시간을 줄이고, 취지를 좀 더 구체화해 불자들의 생활에 구체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프로젝트 제44회 겨울전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교사단 전광성 포교사는 “행사가 5시간 가량 지속되면서 제주도, 경남, 전남 등에서 온 불자들은 행사 앞부분만 참석하는 등 행사의 집중력이 떨어졌다”며 아쉬워했다.

이상연 기자 un82@buddhapia.com

“티베트는 부처님이 깃든 나라”

‘차마고도’ 김무관 PD 봉은사서 강의

“부처님이 현신으로 어딘가에 깃들어 있다면 그곳은 티베트일 것이다.”

“차마고도(茶馬古道) 5000여km는 접근 자체도 쉽게 허용되지 않는 신비에 감긴 곳이었다. 1년 4개월 생사를 오가며 사라져가는 차마고도의 모습을 담았던 KBS ‘차마고도’ 책임프로듀서 김무관 PD(사진)가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를 찾았다. 11월 18일 ‘차마고도의 삶과 예술’이라는 주제로 열린 공개강좌에서 김무관 PD는 촬영 당시의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말할되는 티베트 불교를 소개했다.

김무관 PD는 “차마고도를 넘는 과정은 치열한 생존투쟁과 같다. 혹독한 추위와 힘든 여정 속에서도 그들은 모포를 개면서도 불경을 외고, 잠들기 전에도 독경을 한다. 티베트는 불교를 떼어놓고는 이야기가 되지 않는 나라다. 그들의 삶의 방식이나 자연풍광에는 관세음보살의 현신이 스며들어 있다”고 회고했다.

티베트인들의 일생일대 최대의 소원인 오체투지 순례를 ‘이해되지 않는 감동적인 장면’으로 꼽았다. 김 PD는 “촬영팀 모두 그들이 ‘왜 하는지’ 의문이었다. ‘왜 하느냐’고 물으면 ‘이세상의 모든 생명의 평화를 위해 갑니다’ 라고 대답해 인터뷰 발언을 한다고 생각했다”며 “중생의 이익을 위한 이들의 오체투지는 언어를 넘어선 세계다. 2200km를 9개월간 오체투지로 이동해 즉황사원에서 다시 2개월간 10만 배를 한다. 10만 배를 마친 그

들의 얼굴을 보면 ‘저것이 바로 부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김무관 PD는 “차마고도는 1~2년 안에 그 모습이 사라질 것이다. 사라지기전 마지막 기록을 남기고 싶었다”며 “최근 중국의 티베트 탐험은 심각한 수준이다. 중국 서부의 청하이 성 시닝과 티베트 자치구 라싸를 연결하는 청장철도(淸藏鐵路)가 들어서면서 차마고도를 비롯한 티베트의 전통은 없어지고 라싸는 지금 다 망가지고 있다. 노래방, 음식점, 뽕짜롱 등이 들어서고 활불(活佛)을 대서승으로 만들어 티베트의 정신문화중심인 불교정신 말살에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경고했다.

개인적으로 불교에 대한 애정이 있음을 밝힌 김 PD는 정신문화를 다룬 새로운 다큐도 기획중이다. “현재는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제목으로 한 다큐를 기획중이다. 서양에서 불교는 종교를 떠나 삶의 중요한 철학으로 일상에 투영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는 미얀마, 스리랑카 등 개인 수행정진과 해탈을 위한 사찰이 많다. 이런 지역을 찾아 방문하지 않은 불교와 깨달음의 정신들을 다룰 계획”이라며 “현재는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진행을 유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연 기자

어린이지도자 교육 잇달아 열려

불교레크리에이션협·동련 등 개최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도경·02-738-7860)는 11월 29일 일요일 오전 9시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 보우당에서 ‘희망으로 가는 어린이 포교’를 주제로 제44회 겨울 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한다.

강습회에는 패션 페인팅, 봉은사 탐방, 교리퀴즈대회, 겨울철 실내 레크리에이션, 찬불가와 율동레크레이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참가비는 3만원으로 선착순 100명 접수 받는다.

한편 조계종 포교원(원장 해충)과 (사)동련이사장 심삼·051-864-4665이 공동주최하는 제48차 전국 어린이지도자 연수회가 12월 12~13일 경주 사조리조트에서 열린다.

12일에는 정여 스님(동련 이사)이 ‘어린이에게 부처님의 향기’를, 이우정 지도교사(오산 대각사 어린이회)가 ‘헬로! 달마 스쿨’을 강의한다. 또한 ‘명상놀이’ ‘부처님의 노래’ 등을 주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상연 기자

경전연구회 경전강좌 안내

즐거 스님들만의 공부모임인 불교경전연구회에서 아래와 같이 경전강좌를 개설합니다.

- 강 주** 지리산 칠불사 통광 큰스님
 - 경 전** · 진심직설 · 간화결의론 · 몽산법어
 - 과 정** 6개월
 - 개 강** 2009년 12월 9일(수) 오후 3시 첫 강의
 - 모집인원** 약간명
 - 장 소** 서울 옥수동 미타사 內 대승암
 - 수 강 료** 30만원(6개월)
- 승가의 아름다운 전통을 창조하는 불교경전연구회에 뜻을 함께 하는 조계종(비구, 비구니) 스님들께서는 언제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출가자의 아름다운 삶을 실천으로 옮겨 청정승가의 가풍을 확립하는 디딤돌이 됩시다.
- 계좌번호** 우체국 1023608-01-001671 (예금주: 경전연구회)
 - 문 의** 회장 지장스님: 010-6402-7838 총무 범정스님 010-7963-7070 계부 정당스님: 016-9669-3917

불교경전연구회 회장 지장 합장

참나와의 친밀한 만남

- 몸 마음 영혼의 완전한 치유법!**
 - 전 통 활 락 법 : 최상의 에너지인 수증화(물 속의 불)로 전신에 경락을 일거에 타통한다.
 - 체 절 조 절 법 : 모든 난치병의 뿌리는 뇌에 있다. 체절 조절로 뇌를 다스려 난치병 근처의 신기원을 이룸.
 - 전신골격 조정법 : 손가락 하나를 가볍게 접촉하여 참나의 기운을 나눔으로써 5분 이내에 뒤늦어진 골격을 바로 잡는다.
 - 전생업장소별법 : 뇌수축에 흡수된 아로아시의 전생업장을 천연에너지로 강력하게 태운다.
- 자동 운기법! 자동 축기법!**

수행의 최고 경지는 의문이 배제된 채 저절로 운기와 축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진인의 경지에 바로 진입한다.
- 운명의 공식, 개운의 법칙!**

우주생성의 근본원리로부터 자타의 운명을 파악하고, 미래를 정확하게 예단하는 해안이 열린다. 사업, 취업, 결혼, 부동산매매, 주식거래, 각종 시험 등등 인생 제만사의 각종 문제들을 미리 조정하는 능력이자 된다.
- 영혼의 과학에 의거한 참된 영가 친도법!**

영가의 상태를 직접 파악하고 직접 천도하며 결과까지 직접 확인하는 초유의 비법을 누구나 증득할 수 있다.
- 최강의 양택 발복법!**

9등급으로 양택을 정밀하게 판정하고 기운을 조정하여 최상급의 명당으로 만든다.
- 완전한 깨달음! 행복한 현실창조! 아름다운 진화!**

수 천년 동안 어렵듯한 말로만 전해져서 긴가민가하던 전설이 누구나 실현할 수 있는 최상승법으로 현실화 됐다. (1:1 방식으로 완벽하게 전수하며 회비는 3백만원입니다.)

뚝뚝체형신청하세쇼 좁은 지면에 담지 못한 놀라운 효능! 02)511-5945/ 010-9336-2698